

어린이 책꽂이



▲제인 구달 이야기-초록별 지구에 싹튼 희망 =모든 동물들이 인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지구촌 곳곳을 누비고 있는 동물 행동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동물에 대한 사랑을 키워 나간 어린 시절부터 열정적인 환경 강연을 펼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인 구달의 삶을 소개했다. <웅진주니어·9500원>



▲사랑해 사랑해 우리 날 사랑해=천방지축 말쑥쟁이 꼬마 동이 이야기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북놓아 물어 버리는 동이. 그러나 가족의 사랑이 있어 이내 환한 빛으로 변한다. 가족 모두는 동이를 향해 "아무리 네가 말쑥부러도 우리는 널 사랑해"라고 속삭인다. 가족의 표정 하나하나를 재치 있게 그려 냈다. <처음주니어·1만원>



▲세계의 빈곤, 남반구와 북반구의 비밀=현재 세계정세는 '잠자는 북반구'와 '가난한 남반구'로 나뉘어져 있다. 왜 남반구는 계속해서 가난에 허덕이는데 북반구는 더 부유해지는 걸까, 왜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 등 이러한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설명한다. <세계질·9800원>



▲미순이=동화작가 이미영씨의 첫 번째 책으로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 가난하지만 건강한 나눔이 있는 삶을 어린 소녀 '미순이'의 시각으로 담백하게 풀어냈다. 아빠가 없는 무지개 다방 집 유진이가, 가족을 잃은 거지 달근이가 미순이와 함께 빛어내는 온갖 에피소드를 보여준다. <실천문학사·9500원>



▲공부보다 중요한 1등승관=회사 경영을 조언하는 경영 컨설턴트인 후나이 유키오가 어린이들을 위해 쓴 생활지침서. '친구들은 서로 닮아 가기 때문에 닮고 싶은 사람과 친해져라(닮은꼴 법칙)' 등 1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58가지 승관의 핵심을 뽑아 소개했다. <계림북스·8500원>



▲멜론 먹고 싶어!=멜론을 가장 좋아하는 여자 아이를 주인공으로 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유쾌하게 풀어낸 그림책이다. 딸만 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부모님과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할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왕궁이의 모습을 통해 아직도 존재하는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숨어 있다. <책과과나무·1만원>



▲호박에는 씨가 몇 개나 들어 있을까?=호박의 씨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겉모습만이 아닌 내면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그림책. 친구들과 사이에서 주눅들어 생활하는 키 작은 동양계 아이 찰리가 호박의 크기가 씨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봄나무·1만원>

▲판소리 소리꾼-귀명창이 들려주는 우리 소리 이야기=판소리의 역사와 이론, 역사 속 판소리 명창들의 삶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풀어냈다. 판소리 광대가 되려고 양반이라는 신분을 벗어난 단진 명창, 일제 강점기 나라와 소리를 잃고 떠돌다 생을 마친 명창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우리교육·1만1000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좀비가 된다면?



좀비들 김중혁 지음

김유정문학상, 젊은작가상 등을 수상한 소설가 김중혁(39)씨가 첫 장편 '좀비들'을 펴냈다. 2000년 단편 '핑크뉴스'를 발표하며 등단한 지 10년 만이다. "1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정리하는 결과물"이라는 작가의 말대로, '좀비들'은 그가 그간 선보였던 소설 세계의 종합판으로 보인다. 잊혀진

존재와 사물들에 대한 예감과 의미 부여를 통한 재창조, 엉뚱한 상상력과 능청스러운 유머, 대중문화와 장르문학의 창조적 변용 등 김중혁만의 독특한 색깔 그대로이다. 주인공은 전국을 다니며 휴대전화 수신감도를 측정하는 일을 하는 채지훈. 그가 어느 날 가게 된 아무 전파도 잡지 않는 기괴한 고리오

마을이 소설의 배경이다. 갑작스럽게 죽은 형이 남긴 수많은 LP판 가운데 '스토폴라워'라는 1960년대 록그룹을 알게 된 지훈은 그들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 도서관에서 일하는 거구 풍보130, 스토폴라워 리더의 자서전을 번역해 할머니 흥재정과 딸 흥이안을 차례로 만난다. 소설 초반부에는 좀비가 등장하지 않는다. 독자들이 "이건, 좀비이야기 아니었던가?"라는 의문을 품을 찰나, 주인공과 풍보130 앞에 불쑥 좀비가 나타난다. 우여곡절 끝에 들은 좀비를 처치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고리오마을과 그 주변이 완전히 봉쇄되고 군인들이 투입되면서 이야기는 빠르게 전개된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고리오마을을 둘러싼 비밀과 좀비들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한다. 좀비가 등장하지만 작가는 장르소설의 문법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좀비들이라는 낯선 소재가 뿜어내는 긴장이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들며 개성 넘치는 인물들과 독특한 설정, 간결한 문장과 허허 실실한 유머를 담은 작가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작가는 "장르가 달라도 소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양한 장르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

를 실험해보고 싶었다"며 "좀비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이들, 혹은 살아있는 이들에 대한 잃어버린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거리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폭주족처럼 우리는 달렸고, 스토폴라워의 음악은 멈추지 않았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흔들렸다. 하늘에서는 눈송이처럼 재가 날렸고, 희뿌연 연기가 안개처럼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소풍을 떠나는 줄 알 것이다. 나는 가끔 고개를 돌려 좀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았다." (373~374쪽) 소설의 마지막 대목, 주인공이 스토폴라워의 음악을 소파에서 썰어져라 들고서 사랑을 둘러싼 불길과 수백 명의 좀비와 함께 먼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은 무척 인상적이다. 작가는 "쓸 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좀비란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며 "우리가 좀비, 즉 타자를 어떻게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태도를 은유한다"고 말한다. 그런의미에서 "잘 따라오고 있지? 격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라는 작가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부사이 갈등은 왜 생길까

스님의 주례사 법륜스님 지음



스님이 결혼식 주례를 한다면 어떤 내용일까? 즉문즉설 생활법문으로 유명한 법륜스님이 엮은 '스님의 주례사'는 이러한 질문에 작은 답이 될 것이다. 책은 오랫동안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며 결혼 전 반드시 읽어야 할 글로 화제가 된 스님의 남녀 마음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주제를 통해 세상에 공경이란 티끌만쯤 없다는 인과(因果)의 법칙과, 수레바퀴가 소를 따르듯 모든 인연 맺음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것, 그러하기에 스스로의 마음밭을 잘 다스려 자신만의 생을 피워 내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스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생기는지, 행복하려고 한 결혼생활이 왜 괴로움 속에서 돌고 도는 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책은 또한 웅장하게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에 대해 장밋빛 꿈을 꾸며 새로운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려고 하는 예비부부와 이미 사랑이란 이름으로 결혼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부에게 전해 주는 축복 같은 인생의 지혜이기도 하다. 지난해 작고한 화가 김점선씨의 그림도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휴·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세기 철학자들의 흔적찾기

철학 이야기 이동희 지음



이동희 한국과학영양연구원 고전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는 철학자들의 생전 흔적들을 직접 답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그들의 철학적 사유를 설명하는 철학사 책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인 탈레스와 엠피데클레스부터 20세기 철학자들인 마르틴 하이데거, 한나 아렌트, 자크 데리다, 질 들뢰즈 등까지 광범위하게 다뤘다. 위대한 철학자들도 철학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간이었던 점에 주목해 서술한 책은 한 인간으로서 방향하고, 실수투성이였던 철학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위대한 사상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바보인지 아닌지 스승인 버트런드 러셀에게 물어봤다는 분석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이야기와 새끼 백조 꿈을 꾸고 플라톤을 소개받았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 등 흥미롭다. 그렇다고 일화에 천착하느라 철학적 설명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곳곳에서 철학자가 쓴 글을 직접 인용하며 상세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또 저자는 10년 동안 철학자들의 고향과 묘지를 비롯해 그들의 손길이 닿았던 곳을 답사했던 느낌을 사진자료와 함께 펼쳐 보이고 있다. <휴머니스트·고정세판 1만6000원, 근현대판 1만9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카메라에 담은 미안마인의 삶

하늘을 나는 새는... 라규채 지음



대나무를 소재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라규채(52)씨가 몸과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미안마 사람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은 포토에세이집 '하늘을 나는 새는 빠 속까지 비운다'를 펴냈다. 책은 '비움'과 '자연', '느림', '행복'을 주제로 미안마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작가의 글을 함께 버무려냈다. 작가는 미안마의 평화로운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비움의 미학'을 발견한다. 속도와 물질이 미덕이 돼버린 현대사회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전통문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미안마 사람의 모습은 작가가 추구하는 공(空)의 세계와 닮아있다. 천연화장품인 타나카로 화장한 만달레이 소녀의 해맑은 얼굴이나 인레 호수에서 스스럼없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움마저 느끼게 한다. 가난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작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삶이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것을 재삼 확인하였고, 비운만큼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대동문화재단·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동산동 The S1 더샵아파트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고층 대물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중개 문의환영!!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 분할가능1층이 옷매장들로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사무실, 학원) 적합 조립, 제조회사 가능하며 지하 주차장 완비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토지 다수보유) 상업지역 토지급매 평당250만원 340평공시지가평당340만원(음식점, 음악홀) 적합중로접합 화순 남면 준보전 관리지역 1900평 매도가 평당 12만원 현재 매입되어 가건물 있음(전원주택, 농장, 공장)적합 구합: 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첨단근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동이 빌딩 1층)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장)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한 011-620-3960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영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류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신도심 중심상업, 방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용 코너 T.881-5866 H.011-601-5354 (사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원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상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역 신문동, 대인동 순환사거리-편)

복대지부동산 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급매 현대 "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 방 급매 (192㎡ 58py) • 총 분양가 • 5억 6천 136만 • 계약금 • 5613만원 납부 • 매매가 • 주인자정상 싸게 급매 ☎ 062) 364-1613 ☎ 010-9005-2223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투자용 ■ 토지 590평 건물 4,400평 (매가 200억 보증금 100억 / 월세 5,000만원) ■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가 95억 보증금 38억 / 월세 2,600만원 용지 12억) ■ 토지 164평 건물 588평 (매가 132억 보증금 5억 / 월세 약 2,000만원 이상)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용, 병원, 학원, 기타부지등) ■ 834㎡(250평) - 매가 평당 1,300만원 (콜럼버스극장과 매가버스중간지킴이) ■ 3,224㎡(975평) - 평당 950만원 ■ 1,651㎡(500평) - 평당 900만원 건물임대용,투자용 ■ (농지) 73,000㎡(22만천평)전, 담 평당 10만원(농산물산지특조) 좋은곳 ■ (공공가능) 송촌동 자연지 7,724㎡(2200천평)전(매가 평당 55만원) ■ (상가) 상무역주변 1층 약 100평 (매가 평당 2,300만원) (비싼도류등) ■ (농지) 나주 신도 50,000㎡(15,000평) 평당 35만원 ■ (주택) 안창동 토지 843㎡(256평) 주택 20평 (매가 평당 85만원) ■ (기타) 용도물건 중주거지 1,352평 (매가 평당 350만원) (예식장, 병원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아비동 길잡이 1층)